

韓國의 都市成長

一次大戰後의 成長을 中心으로

姜 大 玄

序 論

一. 韓國都市發達の 概觀

二. 韓國의 都市分布形成

(1) 都市分布狀態—都市分布, 都市分布狀態

(2) 韓國의 都市成長과 分布形成

ㄱ. 李朝末期에서 1920년까지

ㄴ. 一次大戰後의 都市成長

ㄷ. 1930年後의 都市成長

ㄹ. 解放後의 南韓의 都市成長

三. 都市成長의 類型

(1) 類型的分類

(2) 類型的 特色과 分布

結 論

Summary: The Urban Growth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ost-World War I Development—

Dae Hyon Kang

As the first approach toward the study of Korean urban geography,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study the growth of citi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ir distribution, an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ir patterns. Although the origin of the Korean cities dates back to the ancient time, the most distinctive transformation into modern cities took place only in the latter half part of this century in the wake of the world war I, and therefore the study is centered on the growth in this period.

In the olden times, a feudalistic and bureaucratic consumption city developed rather densely around a royal metropolis, a site of government agency, *pyongyang* (the location of Army Command in the past), *Suyong* (the site of Naval Command in the days gone by), *Chin* (the place of a fortress post), a market, or *yokwon* (post town). However, such feudalistic town was "a city without citizens" and it had been held in a state of stagnancy with no activities whatever, up to the dawn of the century.

Japan sought a way out of the world-wide economic panic following the world war II at the sacrifice of her colonies and through expansionist policy toward the Continent. (In 1910, Korea became one of her colonies.) Thus, Korea was turned into an agricultural country as a sheer center of rice production for her. Then industrialization began depending upon a freak investment by the Japanese. Accordingly,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to cities was noticeable and brought about the consequent expansion of the urban areas. In this urbanization in Korea, three phases can be traced:

1) those which had grown into modern cities out of the feudalistic cities.

2) new cities developed around a transportation center or mining hub.

3) the local cities still in the condition of stagnancy.

The great differences can be noticed in such urbanization or expansion of urban areas among the different regions. With its center at Kyongin Area, comparatively consecutive cities have developed along such main railroad lines as Kyongpu-sun, Kyongui-sun, or Honam-sun: along Changhang-sun and along the southern and northeastern coasts, while the scattered urbanization has occurred in the mountain basins and the eastern coast in the West.

Generally speaking, in Korea like in China and Middle Europe, many a feudalistic city grew in the inland plains and the basins, and some selected ones have been modernized whereas the comparatively slow pace was noticed in the formation of the coastal cities. Having surveyed the urbanization, its process may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7 periods:

The First Period (before 1920): all the cities were still held under the feudalistic setup with the resultant stagnancy noticed.

The Second Period (1921-29): this period saw the modernization of the agricultural areas and the local centers.

During the Third Period (1930-39), in concert with the parallel agri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distinctive urbanization went on in the industrial area in North Korea and the major transportation centers.

The Fourth Period (1938-45): a decree regulating city planning came into force in these cities and resulted in the modernization of the city patterns.

In the Fifth Period (1946-49), the liberation speeded up the social population movement an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ities.

The Sixth Period(1950-55): historically unprecedented destruction of cities and the war damages came.

The Seventh Period (1956 to the present); the reconstruction of the war-stricken cities has been in full swing and the modernization has reached its peak. Now the urban population in South Korea occupies 37.2%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The patterns of the cities developed through the various processes mentioned above may break down into A) Continuously Increasing Pattern, B) Increasing Pattern, C) Stagnant Pattern D) Decreasing Pattern and E) Variable Pattern. Then the following regional differences can be observed: The Increasing Patterns in A) and B) cover the cities in i) Kyongin Area, Choongnam and Chonpuk Area ii) Northwestern Agriculture-Industry Area, and iii) Agriculture-Industry-Fishing Area in Yongnam. The stagnant urban area covers i) small

towns in middle parts of the Charyong mountain area ii) Honam Plains and small local towns in the southwestern coast, and iii) the upper and the agriculture-fishery villages and fishing ports in the southeast coast.

Since the article treats chiefly with the urban growth and distribution patterns through diagrammatization, the patterns which urbanization brings forth, the changes in physical outlook, regional differences in bringing about the urbanization will be analyzed sometime in future.

序 言

人口의 向都離村에 依하여 都市의 急激한 成長을 가져온 것은 19世紀 後半에서 20世紀 前半에 걸쳐서 일어난 世界的인 現象이라고 보겠으나 今世紀에 들어서는 都市를 核으로하는 交通機關의 發達을 媒介로 人口 및 物質의 擴散現象에 依한 都市文化는 더욱 顯著하게 되고 所謂 Metropolitan area 라는 새로운 地域現象을 가져왔다. 그러나 都市의 成長이나 Metropolitan area 의 擴張은 各地方에 있어서 같은 步調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過程이나 類型 그리고 因子에 있어서는 多様多岐한 點을 찾아볼 수 있다. 特히 韓國과 같이 都市 및 村落의 歷史的 背景이 錯雜하고, 都市에 農家가 混在하여 있는가하면 農村에 商店, 學校, 事務所, 病院, 教會, 寺院等 都市的 要素가 섞여있어서 都市와 村落의 機能的 分化가 不分明한 地方에서의 都市化의 樣相은 더욱 複雜하며, 都市와 都市地域에 對한 概念조차도 規定하기 困難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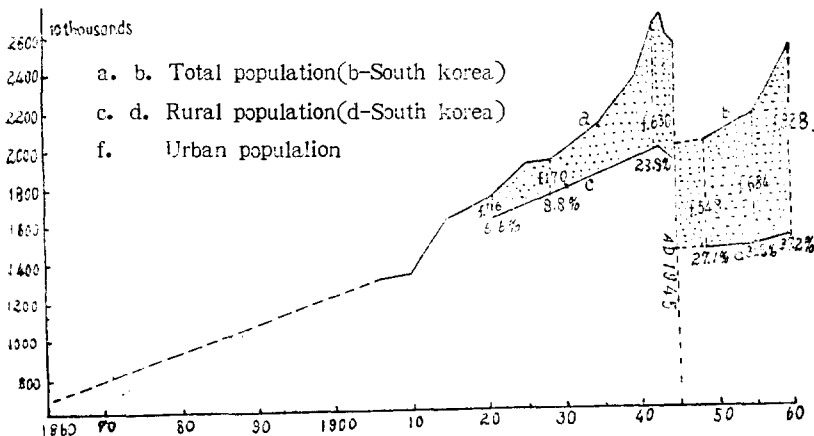
本論文에 있어서는 韓國에서의 都市는 다음과 같은 概念의 것으로 規定한다.⁽¹⁾

- 1) 都市는 地域現象으로서 比較的 狹小한 地域을 占有하나, 人類活動의 核心으로서 周圍의 相當히 넓은 地域에 對하여 經濟的, 文化的, 行政的, 서비스等 諸機能에 있어서 支配的이고 仲介的 役割을 하며, 恒常의인 住居와 作業場, 이에 隨伴된 設備를 가지고 있으며, 農業의 村落과 相互依存關係에 있다고는 보나, 兩居住地域은 對照的인 性格을 갖인 居住地域으로 본다.
- 2) 都市地域에서는, 農, 林, 牧畜, 水産業等 一次産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比較的 적으며 榮養

은 他地域에서 그 大部分이 供給된다. 그리고 主要 交通路의 結節點으로서 物資 및 文化의 集中, 交換, 分配가 行해지고 多數의 人口가 集中하여 있으며 그들은 商工, 公務, 自由業等에 從事하는 人口가 많다.

- 3) 都市의 居住者는 血緣的關係보다도 職業, 身分等에 依한 結合이 強하고, 經濟的으로 特別 需要供給에 있어서 結合이 固은 統一的 地域社會를 形成하고 있으며, 地域的, 社會的인 移動이 크고, 大體로 社會的인 人口增加率이 높은 地域을 形成하고 있다.
- 4) 自然的으로 成長했던 計劃的으로 設定됐던 그 大小에 따라서 地方 및 國家의 統治, 交易, 製造, 文化等의 諸機能을 擔當할만한 建築物과 諸施設, 道路, 鐵道等이 立體的으로 稠密하게 發達하여있으며, 空間의 利用이 顯著하고, 共同化하여 科學的으로 計劃的으로 實施되어 所謂 都市景觀을 이룬다.
- 5) 韓國에 있어서는 行政上으로나 그 機能上 또는 歷史的 背景으로 보아서 邑, 市, 特別市를 都市로 看做한다.⁽²⁾ 여기서 市나 特別市를 都市로 取扱한것은 以上の 觀點으로 보아서 異論은 없을것이나 邑에 있어서는 農業 및 其他의 自然產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너무 많이 包含되어 있다. 都心地와 郊外 Metropolitan area 等 機能分化가 微弱하여 都市的이라기 보다는 村落的인 性格이 많으나, 商工業 및 教育的, 文化的機能에 있어서 地域的인 核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純農村地域과 區別하여 都市地域에 넣

Fig. 1 韓國都市의 人口增加



는것이 韓國의 機能的地域의 構造와 性格을 究明하는데 有利한 것 같다.

一, 韓國의 都市發達의 概觀

今世紀 初까지의 韓國都市發達의 起源은 Greece의 Polis 처럼 都市國家에서 發達한 것도 아니고 Europe의 近代都市처럼 近代 商工業의 發達에 起源하는 것도 아니었다. 古來로 發達한 郡縣制度에 依해서 王都나 地方行政中心, 兵營과 水營, 鎭等의 軍事中心의 圍郭都市에 起源하는 都市가 많았다는 點은 中國과 비슷하다. 이밖에 市場經濟의 發達, 驛政의 發達과 交通路의 整備等이 또한 都市發達의 起源이 되었다. 前世紀까지의 韓國都市의 發達은 特殊한 것을 除外하면⁽³⁾ 他國과의 交通과 貿易, 經濟와의 影響에 依해서 發達한 都市는 적고, 大部分의 都邑이 自國의 歷史的 背景이나 地域的 中心으로서 發達하여 왔기때문에 그發達도 微弱하여 거의 停滯狀態에 있었고, 그 機能에 있어서도 經濟的面보다 行政, 軍事的面이 濃厚하여 所謂封建的인 官僚都市의 性格이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今世紀에 들어와서는 韓國의 政治的 經濟의 事情은 一變하여 韓國都市發達에 一大 變革을 가져왔다. 이 變革을 人口의 都市集中과 都市地域의 擴張 두가지 面에서 概觀할 수 있다.

人口의 都市集中—記錄에 依하면 韓國의 人口는 李朝初(14C. 末葉)에는 100萬 未滿이었으나 肅宗때 (17C. 後半)에 이르러서는 600—700萬에 達하였다. 그러나 그後 3世紀間은 人口增加는 停滯狀態를 이루어 20世紀初까지도 이狀態로 繼續되었다. 勿論 여기에는 人口調査의 不確實性⁽⁴⁾에도 起因하겠으나 人口의 增加率이 停滯的이었다는 것은 當時의 情勢와 生活狀態로 보아서 首肯할 수 있는 일이다. 全體人口의 停滯性은 勿 都市人口의 趨勢에도 나타나고 있다. 漢城(서울)의 人口는 17世紀 末葉에 19萬 內外이던 것이 1904年에도 亦是 19.2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아서 其餘의 地方都市도 若干의 差는 있겠으나 大同小異하다고 본다.⁽⁵⁾ 따라서 1萬 以上の 都市 人口의 比率은 李朝 全體를 通하여 3~4%에 不 過하였다고 본다.

今世紀에 들어와서 韓國人口는 急激히 增加하여 1921年 1745萬이었던 것이 1929년에는 1933萬, 1942년에는 2636萬으로 增加하였으며 21年間에 實로 51%의 激增을 보였다. 그러나 都市人口의 增加는 더욱 컸다. 1921년에 市邑의 人口는 116萬이었는데 1929년에 170萬, 1942년에는 630萬에 달하여, 21年間에 實로 4倍半以上の 增加를 가져왔고, 全體人口에 對한, 都市人口의 比率에 있어서도 1921年 不過 6.6%에서 1929年 8.8%, 1942년에는 23.9%를 占有하여 其間에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이 顯著했었다는 것을 말한다.

解放後 南韓에 있어서는 政治, 社會, 經濟的인 理由에 依하여 人口의 向都離村과 Metropolitan area 化의 現象은 더욱 人口의 都市集中을 招來하여 現在 $\frac{1}{3}$ 以上の 人口가 市邑에 居住하고 있다⁽⁶⁾(Fig. 1)

都市地域의 擴張—今世紀初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都市는 그 機能에 있어서 消費爲主의 封建圍郭都市였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는 城壁이 形態上에 있어서 都市와 周圍地域과 隔離시키고 있듯이, 그 機能上에 있어서도 郊外地域이나 衛星都市의 發達은 거의 없었고, 都市에서 農村은 城壁하나로 隔離되어 있어서, 都市地域은 點的으로 散在하여 Metropolitan area의 發達은 微弱하였다.

그러나 1910年 以後 都市地域은 急激히 擴張되어갔다. 1910년에는 市, 邑數는 不過 14個 이었는데 1921년에는 37個, 1929년에는 49個, 1942년에는 130個로서 30餘年間에 8倍以上의 市, 邑이 舊邑에서 發展하기도 하고, 새로운 立地條件이 新都市의 發展을 갖어오기도 하였다. 都市數의 激增뿐만 아니라 都市의 規模도 近代都市로 發展하였다. 1910년에는 人口 5萬以上の 都市는 서울 釜山에 不過하였으나 1942년에는 서울은 100萬以上の 巨人都市로 發展하고, 10萬 以上の 中都市가 9個로, 5萬以上の 都市가 11個, 1~5萬 都市가 109個에 달하였다. (Fig. 2)

都市의 機能도 消費中心에서 商工業, 交通, 文化, 教育等 多樣化하여 郊外로의 擴張과 併合, 衛

星都市의 發生等 Metropolitan area의 擴張은 顯著하게 되었다.

二, 韓國의 都市分布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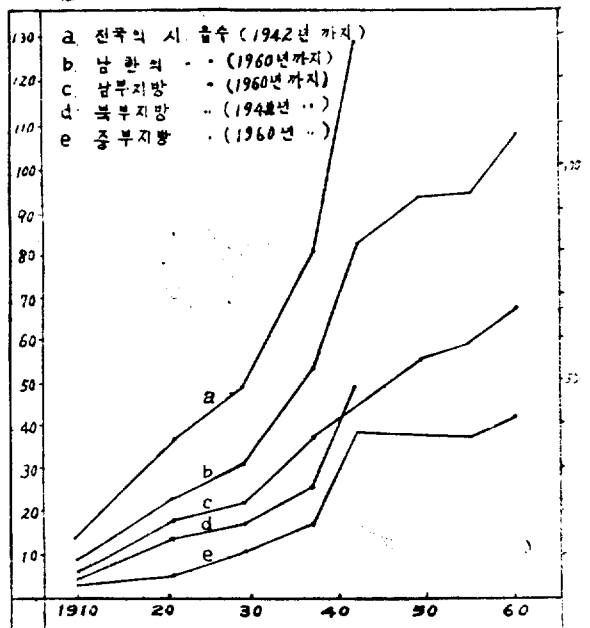
(1) 都市分布狀態

都市化를 地理的으로 考察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方向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分布가 展開되는 發達過程을 追求하는 일과 또 하나는 分布狀態를 地域別로 考察하는 일이다. 特히 前者에 있어서는 成長形態의 類型化에 依해서 都市群의 生態學的인 考察이 重要하다.

여기서는 韓國을 全國的인 立場에서 都市化를 考察하는데 있어서 極大를 보였다고 생각되는 1942年의 都市人口密度圖에 依해서 都市가 地域的인 質點으로서 都市地域을 形成하고 있는 形態를 보고, 이것이 어떤 過程으로 形成되었나를 考察하고, 끝으로 그 成長形態를 類型化하고 分類를 試圖하여 各地域의 都市生態의 一部를 究明하려고 한다.

都市分布圖—都市分布는 個個都市의 分布에 依해서도 考察할 수 있으나 都市人口密度圖는 都市化의 程度와 都市地域을 大概 表示하기때문에 比較的 効果的으로 都市度를 計測할 수 있다.

Fig 2 韓國의 地方別 都市成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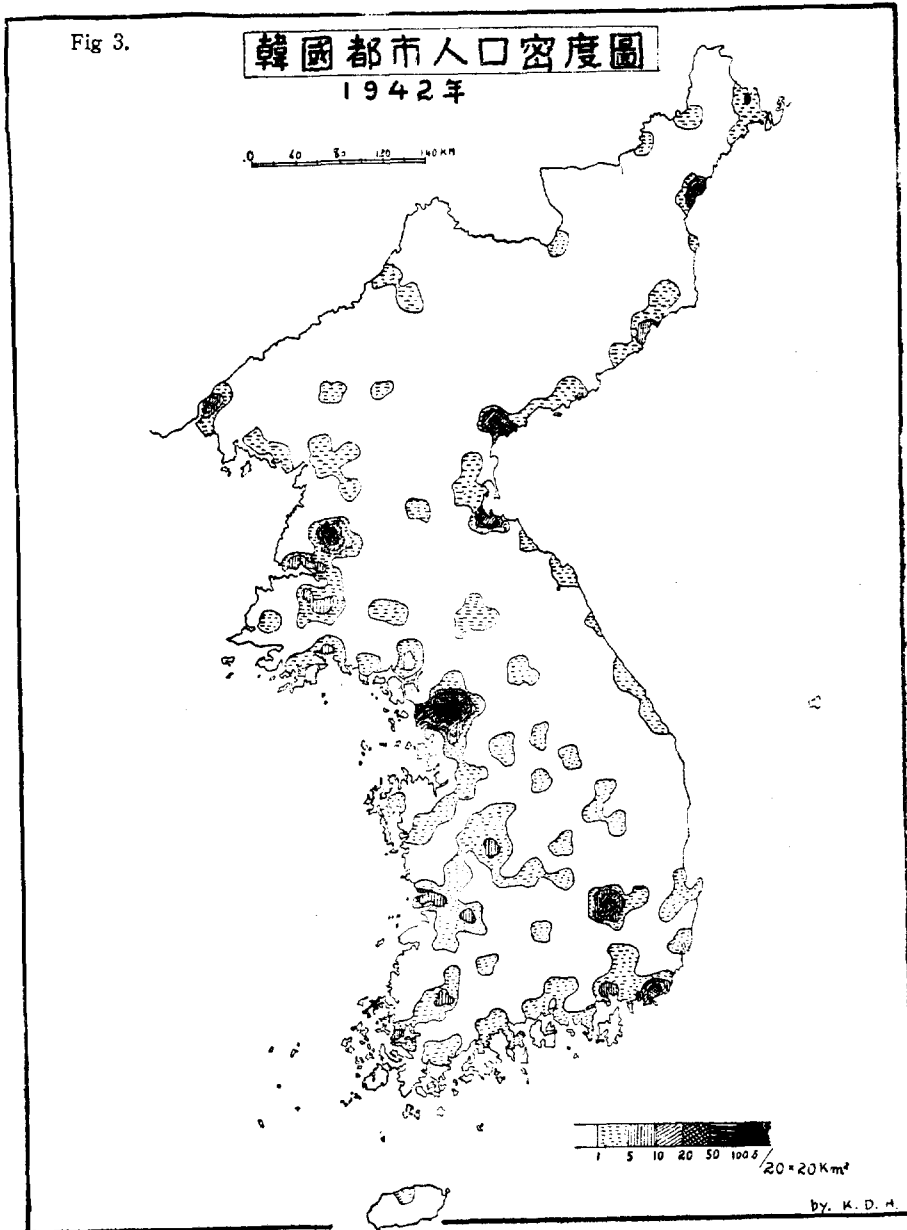


都市 人口密度圖는 都市人口의 絶對分布圖 (1/200萬) 上에 1×1cm의 方眼을 써우고, 이것을 上, 下, 左, 右 5mm씩 移動시켜 方眼中心點에 絶對人口數를 計測記入하면 結局20×20(km²)의 二重網에 依해서 密度를 計測 結果가 되는데 이것을 適當한 階級으로 區分하여 等充線化 하였다, (7) (Fig. 3)

여기서 200萬分の1 原圖에 20×20(km²) 方眼을 使用했다는 것은 計測의 便宜上 擇한 것인데, 구택여 理由를 든다면 20km 라는 距離는 徒步로

一日往復 路程이고 近代交通機關에 依한다면 30分~60分이 所用되며 Metropolitan area 에 있어서 通學, 通學의 距離라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고 본다. (8)

都市分布狀態—1942年の 全國都市 人口密度圖 (Fig. 3)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韓國의 都市化는 偏在性이 크며, 分布의 中心點이 平野와 盆地와 一致하고 있는 點으로 봐서, 地形의 制約이 顯著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都市 形成過程으로 봐서 韓國은 다른 Asia의 後進國과 같이 세가지 樣相



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今世紀 以前의 封建時代에 있어서 地方行政의 中心, 兵營, 鎭과 市場, 宿驛, 나무(渡津)等 聚落과 같이 國內行政, 經濟에 對應해서 農村을 基礎로 成立된 地方都市는 全國적으로 比較的 稠密하게 分布하고 있었다.⁽⁹⁾

이들 封建의 地方都市에는 尙今도 地方未端行政 및 市場 經濟機能과 몇가지 地方的 서비스 機關을 가지는 活氣없는 停滯의인 地方中心을 이루는 都市들이 있다. 들쭉는 이것과는 對照的으로 서울, 平壤, 大邱, 光州, 全州, 清州, 釜山, 晉州, 元山, 咸興等 選擇된 十餘個 都市는 主要交通 機關의 惠澤과 現代 商工業의 立地 및 地方的 中心의 機能의 增大에 따라 韓國都市地域의 中核을 形成하고 있다. 셋째는 交通의 要地, 港灣, 鑛工業 都市로서 主로 今世紀에 이르러 成長한 所謂新興都市群이 있다. 例를 들면 興南, 城津, 清津等, 關北海岸地方의 新興工業都市와 大田, 裡里, 鳥致院, 新義州等의 交通都市가 있다.

地域別로 보면 1942년에 있어서 都市人口密度가 50萬/(20 km)² 以上の 都市地域은 서울 밖에 없고, 10萬/(20 km)² 以上이라야 大邱, 釜山, 平壤, 新義州, 元山, 咸興, 清津이 있을 뿐이다. 5萬/(20 km)² 以上の 地域은 馬山, 木浦, 群山, 海州, 鎭南浦, 城津 等の 貿易港都市와 光州, 全州 大田, 開城, 沙里院 等⁹⁾ 內陸의 地方中心都市들이다.

都市地域의 連續的인 分布地域은 大體로 主要幹線鐵道 沿線과 長項線沿線, 南海岸과 東海岸의 三陟 以北과 浦項以南海岸, 그리고 關北 海岸地帶를 들수 있다. 特히 連續的인 都市 地域으로서는 서울~水原~天安~廣川에 이르는 京釜, 長項線沿線, 清州~鳥致院~大田~金泉, 大邱~釜山 馬山~慶州에 이르는 京釜沿線, 大邱線沿線과 東南海岸一帶가 있고, 한편 大田~裡里~全州~群山, 光州~木浦에 이르는 湖南線沿線地域과 多島海沿岸의 分散的인 都市들을 들수 있는데, 5萬/(20 km)² 以上の 地域은 中心都市 뿐이고 大概의 地域은 小都市에 依해서 構成되는 1萬~5萬/(20 km)² 의 地域이다.

中斷된 部分은 있으나 比較的 連續的인 地帶는 元山~咸興~興南~城津~清津에 이르는 咸鏡線 海岸地方의 新興工業地帶와, 沙里院~平壤, 鎭南

浦~安州~宣川~新義州에 이르는 京義線沿線, 地域을 들수 있는데, 亦是 中心都市인 平壤地方의 20~50萬/(20 km)² 를 除外하면 1~5萬/(20 km)² 의 地域이 大部分이다. 서울地方을 中心으로 素砂, 仁川, 安養, 議政府, 水原等を 包含하는 Metropolitan area는 都市人口密度上으로 韓國에서 가장 都市度가 크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는데, 中心部는 100萬/(20 km)² 以上이며 他地域과는 顯著한 差異가 있다. 이에 이어서 큰것이 平壤에서 鎭南浦, 松林, 勝湖, 黃州, 沙里院, 載寧 信川에 이르는 大同江下流 平野의 都市地域인데 中心部에서 10~20萬(20 km)² 이며, 繼續 增加의 傾向이 보인다 (1942年 現在). 다음이 大邱에서 釜山, 馬山에 이르는 都市地域인데 連續性이 稀薄하다.

分散的이며 稀疎한 密度를 가지는 地域이 鎭西地方의 山間盆地列과 鎭東地方의 沿岸小都市列을 들수 있으나 1~5萬/(20 km)² 를 넘지 못한다. 特히 韓國의 東海岸에서는 南海의 多島海岸처럼 沿岸都市가 比較的 發達하여 있으나, 西海岸에 있어서는 큰 河川의 河口附近을 除外하면 都市地域이 海岸에서 隔離되어 分布하는 點은 東, 南海岸과 對照的인 것이며, 潮汐의 差가 크고 干瀉地가 넓어서 바다에 接近하기 困難한 點에 가장 큰 理由가 있는 것 같다.

以上の 分布狀態에서 본바와 같이 韓國의 都市가 主로 平野나 內陸盆地에 고루 分布發達하고 있는 點은 新大陸이나 日本等地와는 對照的인 것이며, 中國의 華北地方, 中部 Europe의 傾向과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特色은 舊大陸의 諸都市가 內陸地方의 封建都市가 成長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考慮할때 決코 週然한 一致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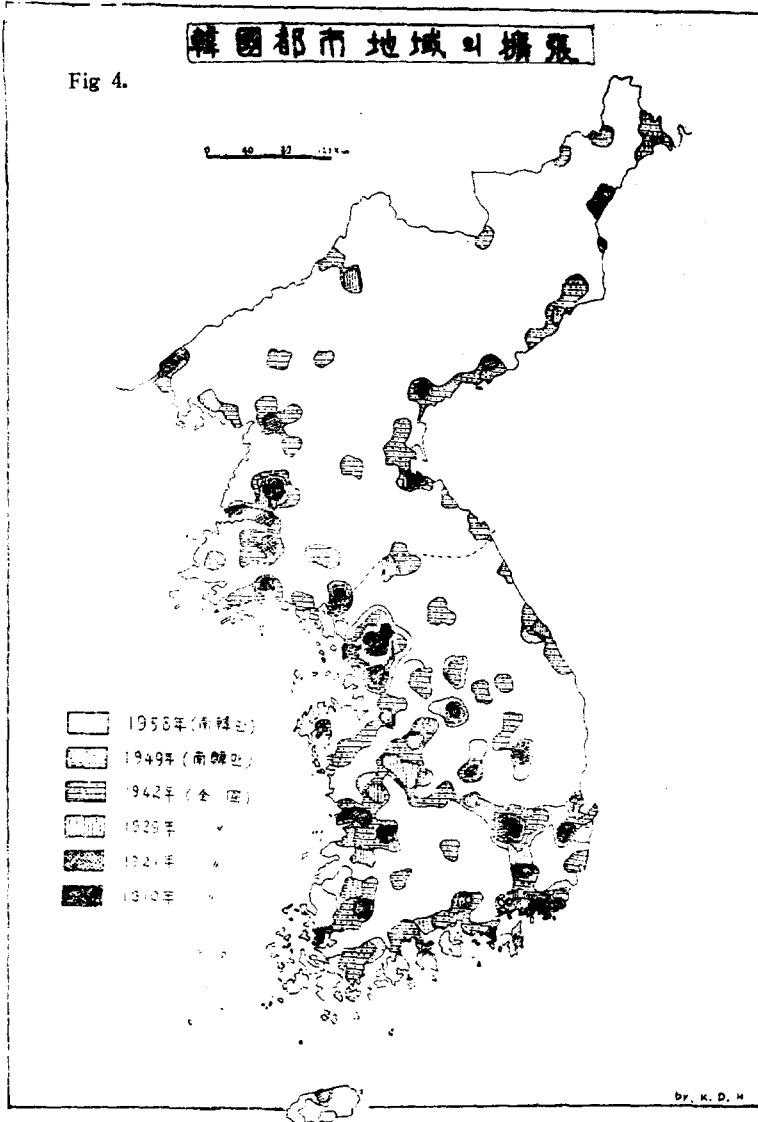
(2) 韓國의 都市成長과 分布形成

ㄱ. 李朝末에서 1920년까지

都市分布와 成長을 促求하는 條件은 時代에 따라서 다르다. 1910年 韓國이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으나 都市成長에 큰 變化를 가져온 것은 世界一次大戰(1914~1919年)後라고 볼수 있다. 李朝時代의 韓國의 都市는 封建的 地方制度(郡縣制度)에 依해서 所謂“市民없는” 官僚都市로서 行政과 消費를 主要機能으로 全國各地에 比較的 高루 分布하여 있었다. 그러나 王都나 地方의 優

韓國都市地域의擴張

Fig 4.



位都市인 서울, 開城, 平壤, 大邱, 東萊, 全州, 光州, 公州, 海州, 咸興, 開港場인 仁川, 釜山, 元山, 統營(忠武), 馬山, 鎮南浦 등이 겨우 人口 1萬以上 都市였다. 封建社會에 있어서 地方의 優位都市는 그 都市가 管轄하는 行政區域, 戶口 結數의 크기에 依해서 定해지는 傾向이 크다는 것은 다음 表에서 窺할수있다. (第1表). 當時 管轄區域, 戶數, 結數가 큰 所謂 大郡의 中心인 楊州, 開城, 水原, 慶州, 江華, 公州, 洪川, 淸州, 忠州, 全州, 金堤, 靈光, 羅州, 靈岩, 順川, 長興, 珍島, 濟州, 南原, 大邱, 密陽, 蔚山, 慶州, 義城, 安東, 尙州, 星州, 金海, 晉州, 原州, 江

陵, 海州, 安岳, 黃州, 平壤, 定州, 義州, 江界, 咸興, 永興, 北靑, 吉州, 鏡城, 會寧 등은 大部分 그대로 現在의 都市로 發展하는 基礎가 되었다. 勿論 以上の 封建都市가 全部 近代都市로 變貌發展한 것이 아니라, 現代의 交通網에서 떠러졌거나 行政官廳의 移轉, 併合에 依해서 廣州, 靈岩, 星州, 義州, 鏡城 등과 같이 衰退沈滯한 것도 있다.

ㄴ. 一次大戰後의 都市成長

都市의 成長의 段階를 韓國의 社會經濟發展의 段階에 對應해서 다음과 같이 7區分할수 있다.

第 1 表 李朝末葉의 主要都市人口와 管轄區域 戶數와의 對比

李朝末管轄戶數	7,000戶 以下	7,000戶~ 10,000戶	10,000戶~ 13,000戶	13,000戶~ 16,000戶	16,000戶~ 19,000戶	19,000 戶以上
1910年度人口						
50,000 以上						漢 城 (서울)
50,000~10,000		東萊 光州	開城 咸興	大邱 海州	安東, 尙州 慶州, 公州	平壤 全州
10,000~5,000	濟 州 咸安 安梁 城山	會寧, 北青 宣川, 安州 昌原, 蔚山 鏡城	密陽 江界 南原	水 原 安 岳		
5,000~3,000	潭陽, 吉州 寧邊, 驪州 長淵, 谷山 泰川, 信川, 瑞興 端川, 靈山, 洪原	載寧, 黃州 康津, 永興	洪 州 靈 光	清 州	晉 州	

- I 期 李朝末~1920年 封建經濟期——封建都市沈滯期
- II 期 1921~1929年 米穀單一農業期——近代都市萌芽
- III 期 1930~1937年 農工併進期——近代商工業都市發展期
- IV 期 1937~1945年 戰時統制經濟期——近代都市計劃實施期
- V 期 1945~1949年 解放後 混亂期——南韓都市人口集中期
- VI 期 1950~1955年 韓國動亂期——戰災都市期
- VII 期 1956~1960年 韓國經濟再建期——戰災都市再建期

I 期는 前述한바와 같이 몇몇 選擇된 都市外에는 大部分의 都市는 前世期的인 地方行政 中心으로서의 沈滯性을 免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日本植民政策에 있어서 企業勃興을 抑制하기 爲한 會社令을 1911년에 發布하고 韓國을 單純한 食糧供給地로 開發할 目的이있기 때문에 三南의 穀倉을 비롯한 中南部와 北西部 平野地帶에 農業地帶의 中心都市들이 多少 成長發展하였다. 卽 1910년에 中南部 地方에 1萬以上の 都市가 9個이었는데 1921년에는 23個로 增加하였고, 北部는 5個에서 14個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全人口에 對한 都市人口의 比率은 겨우 6.6%로서 아주 低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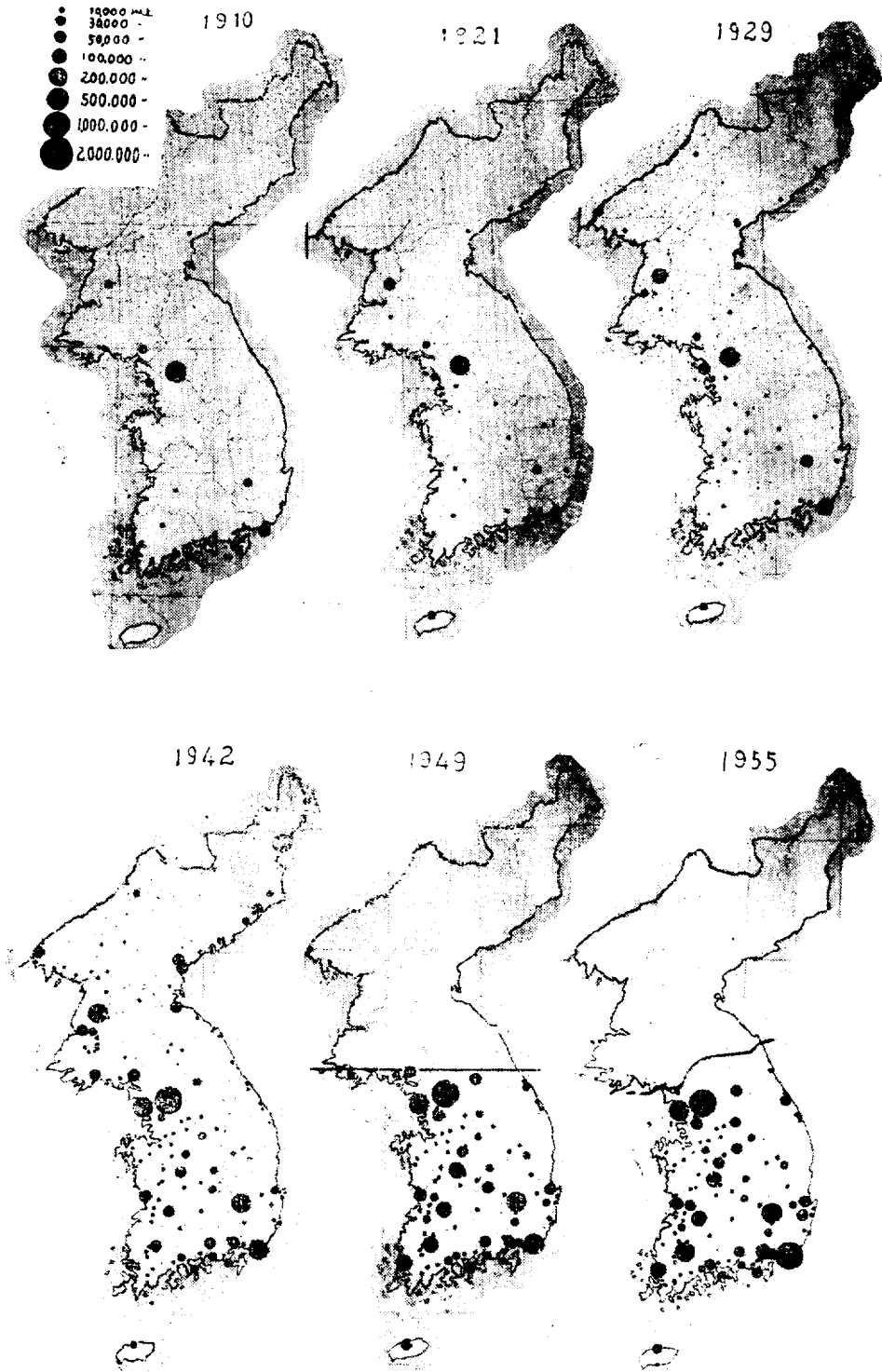
그러나 II 期(1921~1929年)의 米穀單一農業에 있어서는 農地帶의 都市發展이 더욱 顯著히 나타났다. 그것은 米穀輸出的 增大에 따라 精米業의 企業化, 米穀의 商去來가 活潑해짐에 따라서 그 集散地가 都市成長의 要因이 되었다. 따라서 中南部에서는 23個에서 33個로 都市가 增加하였는데 특히 湖南地方에서는 全州, 群山, 裡里, 井邑, 光州, 木浦 等 米穀集散地와 輸出港에 있어서 人口增加가 컸고, 錦江流域의 內浦平野에서는 清州 鳥致院, 大田, 論山 等の 人口增加가 컸다. 嶺南地方에서도 大邱, 金泉, 密陽, 晉州, 馬山, 釜山 等이 크게 成長했다. 한편 北部地方에 있어서도 平壤, 沙里院, 鎮南浦, 宣川, 新義州, 元山, 咸興, 坡津, 淸津, 雄基 等の 人口增加가 컸다. 그러나 全人口에 對한 都市人口는 8間年에 亦是 6.6%에서 8.8%로 成長을 가져왔을 뿐이다.

Ⅲ. 1930年後의 都市成長(III期와 IV期)

韓國의 米穀農業의 發展은 結局은 日本米穀農業에 威脅을 주게되자, 1930년부터 日本의 植民政策은 米穀增産計劃을 中止하고 農工併進으로 方向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勿論 여기에는 其외의 여러가지 客觀的인 條件을 들 수 있다. 그것은 世界的인 不景氣에서 殖民地를 犧牲시켜서라도 헤어나려고 하는 經濟的인 理由와, 日本의 滿州侵略에 있어서 韓國을 그 基

Fig. 5 韓國斗都市分布形成



1960



地化하려는 地政學的인 理由에서 日本 本國과 맞서지 않는 테두리안에서 韓國의 工業化를 꾀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蓋馬高原의 長津江 赴戰江물이 流域 變更發電方式에 依해서 莫大한 水力電氣를 供給하게 되자 興南을 비롯하여 北東海岸地方에 工業都市가 巨步

的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中南部에도 많은 都市가 成長하였다. 1931年 全生産額中 25%에 不過하던 鑛工業 生産額은 1937年에 37%로 增大하고 이 農業生産額은 63%에서 52%로 減少하여 名實共이 農工國家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都市는 北部地方에 있어서 17個에서 26個로, 中部地方에서는 11個에서 17個로, 南部地方에서는 21個서 37個로 發展하였다. 特히 都市人口增加率이 큰 地方은 內浦平野와 湖南平野의 中心都市인 光州, 木浦, 全州, 大田, 淸州 等地가 激增을 보이고 서울, 水原과 海州, 城津, 淸津 等を 비롯하여 海岸地方의 諸都市가 大體로 人口增加가 컸다. 反面 密陽, 大邱, 慶州, 尙州, 忠州, 公州, 開城, 平壤, 安州, 北靑, 會寧 等の 內陸地方 諸都市에서는 停滯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

Ⅳ期에 該當하는 1937~1942年에는 中日戰爭이 일어나서 所謂 主要産業統制法에 依한 統制經濟가 實施되어서 重化學工業을 비롯하여 各種工業의 發展이 컸기 때문에 都市의 飛躍의 成長을 가져왔다. 한편 이러한 都市成長에 對應해서 1934년에는 韓國市街地計劃令⁽¹⁰⁾ 이 發布되어 既成市街地의 整理擴張과 新市街地의 創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7年까지 市街地

整理를 實施한 都市는 서울, 淸津, 羅津, 城津 等地에 不過하였는데 1937年에는 仁川, 木浦, 大邱, 釜山, 平壤, 新義州, 咸興, 羅南 等地에 實施하고, 其後 이어서 大田, 全州, 群山, 元山, 春川 等地에 實施되었다. 이리하여 自然發生的으로 成長해온 前近代의 街路狹隘하고 不潔한 都市形態는 名實相付하여 近代都市로 變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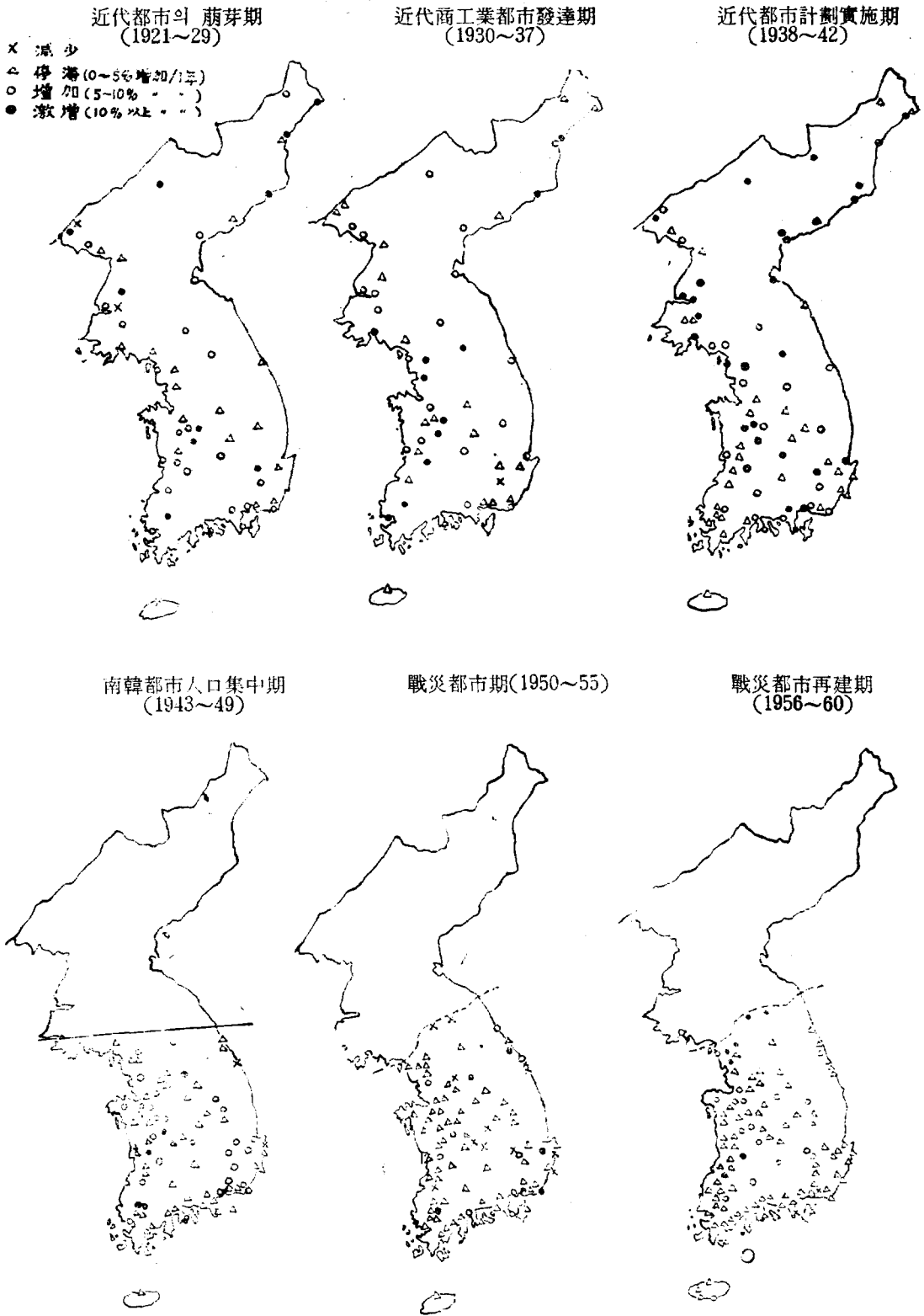
이 時期에 가장 都市 成長率이 컸던 地方은 巨步的으로 工業이 發展한 北部地方인데 1942年까지 不過 五年間에 都市數는 26個에서 47個로 激增하였다. 特히 元山, 興南, 咸興, 北靑, 城津, 吉州, 淸津, 羅津 等の 北韓工業地帶의 工業都市와 海州, 沙里院, 松林, 鎭南浦, 平壤, 新義州, 江界 等の 西北工業地帶의 中心都市들은 年 10% 以上の 人口激增을 가져왔다. 한편 中南部 地方에 있어서도 서울, 仁川, 大田, 全州, 大邱, 馬山, 晉州 等 中心都市들은 激增의 傾向을 보이었으나 湖南平野와 洛東江流域의 中小都市에서는 若干 停滯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 點이 對照的이다,

二. 解放後 南韓의 都市成長

解放後 政治, 經濟, 社會는 混亂하였다. 特히 經濟面에 있어서 經濟構造의 急變 技術不足, 外國商品의 流入은 各部門 産業界를 萎縮시켜 物價는 昂騰하고 失業者는 續出하였다. 이들 失業者와 海外에서의 歸國民, 越南民들은 都市로 流入하여 都市人口의 膨脹을 가져왔다. 解放前 都市人口의 約 1/4 을 차지했던 日本人이 歸國했음에도 不拘하고, 南韓의 都市人口는 393.6萬(1942年)에서 547.7萬(1949年)으로 增加하여 都市 人口率은 27.1%를 차지하게 되었다. 特히 原州, 大田, 裡里, 松汀, 光州 等に 人口增加가 컸고, 大體로 水原서 大田까지 京釜沿線都市와 大邱一馬山一釜山一浦項 圈內의 東南地方의 都市에 增加 傾向이 보인다.

Ⅵ期에 該當되는 1950~1955年은 史上未曾有의 都市戰災가 큰 時期이다. 嶺南의 東南部 地方과 몇몇 地方都市를 除外하고는 多少間에 戰爭으로 破壞되었다. 特히 中部地方의 큰 都市들은 그 被害가 激甚하였다. 따라서 이 時期에 있어서 人口

Fig 6. 韓國의 都市成長



增加가 컸던 都市는 釜山, 鎭海, 慶州, 大邱 等의 東南地方의 諸都市와 原州, 江陵, 光州를 비롯하여 裡里, 大田, 水原, 束草 等이 있을 뿐이고 其他都市는 減少 또는 停滯狀態를 免치 못했다. 特히 休眠線 附近의 鐵原, 金化는 完全 破壞되어 廢墟가 되어버렸다.

끝으로 Ⅶ期에 該當하는 時期는 戰災都市의 再建期라고 볼수 있다. 外國의 經濟援助에 依한 國內自立經濟로 指向하는 再建活動은 그 效果는 微弱하였으나 都市再建에 있어서는 서울을 爲始한 地方主要都市의 住宅, 商店, 公的建物, 橋樑의 復舊가 顯著하여 現代都市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地域別로 보면 서울과 그 衛星都市인 素砂, 議政府, 安養을 비롯하여 牙山灣 沿岸平野의 小都市 및 軍事都市인 論山, 鎭山都市 寧越, 新興工業都市 忠州等지와 南部地方의 大邱와 光州等 地方中心을 비롯하여 몇몇 都市에 있어서 人口增加의 傾向을 보일뿐이고 大體로 停滯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 特히 動亂時 人口增加가 컸던 嶺南의 東南部 小都市와 多島海岸의 小都市 및 湖南平野 中部內陸地方의 小都市들은 이 期間에 一時 人口減少의 傾向까지 보이고 있다.

三. 韓國都市成長의 類型

今世紀에 들어와서 韓國의 都市가 어떻게 成長하여왔나 其間의 政治, 經濟, 社會條件에 따라서 7期로 區分하고 各期에 都市가 成長해온 모습을 地域別로 考察해왔다.

各 都市가 市·邑이 된後에 成長 變異한 모습을 類型化하고 그 類型의 分布地域을 考察하여 地域의 特色을 究明하는 것도 意義있다고 본다. 特히 各地方의 地理的 및 社會條件이 都市成長에 어떻게 作用하여 왔나를 單的으로 엿볼수 있고 어느 地域이 都市成長에 活潑한가 또는 어느地方이 停滯의인가를 究明한다는 것은 地域의 構造와 機能을 아는 重要手段이 된다고 본다.

(1) 類型의 分類——各都市의 各期의 1年平均 人口增加率을 求하여 다음과 같이 區分하였다.

- A. 激增——年 10% 以上 增加
- B. 增加——年 5%~10% 增加
- C. 停滯——年 0~5% 增加
- D. 減少——人口減少

以上の 五型을 年增加率에 依해서 切線 그래프를 그렸다(Fig 7)

그 形態에 依해서 第2表와 같이 그 類型을 A₁, A₂, A₃, A₄, A₅, B₁, B₂, B₃, B₄, B₅, B₆, C₁, C₂, C₃, C₄, D₁, D₂, E₁, E₂, E₃, E₄ 으로 細分하였다. (Fig 7)

(2) 類型의 特色과 그 分布

A의 繼續增加型은 1920年 後에 있어서 停滯하지 않고 比較의 急速度로 繼續 發展해온 都市들인데, 서울, 仁川, 水原 京仁工業地帶의 中心都市를 비롯하여 淸州, 大田, 光州等의 地方行政中心都市들과 大邱, 釜山, 馬山 等 嶺南工業地帶의 中心都市들 平壤, 沙里院, 鎭南浦, 海州, 新義州 江界等 關西工業地帶의 中心都市들, 元山, 咸興, 城津, 淸津等 關北工業地帶의 中心都市들은 例外 없이 A型에 屬하고있다. A型의 都市中 仁川, 元山, 馬山, 城津, 鎭南浦 等의 港市와 水原, 沙里院, 江界等 地方工業都市를 除外하면 나머지는 全部가 首都나 地方行政中心地(道廳所在地)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前世紀에 못지않게 行政的 機能이 近代商工業 機能과 같이 地方都市 發展에 重要因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近代都市化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新興都市보다 많은 人口를 維持하고 있는 舊都市가 自身の 消費能力의 增大에 따라서 都市化에 拍車を 加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A₂型은 南韓에 있어서 解放前後를 通하여, A₃, A₄型은 北韓에 있어서 解放前에 大體로 一定하게 繼續增加한 것이고 A₁型과 A₅型은 增加曲線에 多少 變化가 있는 것인데 其原因은 單純하지 않을 것이다.

B型은 A型보다는 低率이나 漸次的으로 成長하여 地方의 中都市로서 地方의 副次的인 中心都市를 形成하고 있는데 大體로 A型地域의 外郭地域 또는 中間에 分布하여 都市成長類型 地域區分에 있어서 增加地域을 構成하고 있다. (Fig. 8, 9)

B₁은 天安, 安東, 慶州, 順天, 三千浦, 忠州 等 地方交通의 要地에 있는 都市들이며 比較의 一定한 傾向으로 漸次成長한 것이다. B₂는 公州 江陵은 比較의 古都市에 屬하여 重要幹線交通路에서 떨어져 있어서 停滯性이 濃厚했으나 一時 增加率이 커서 中都市를 이룬다. 鎭海, 浦項, 烏

第 2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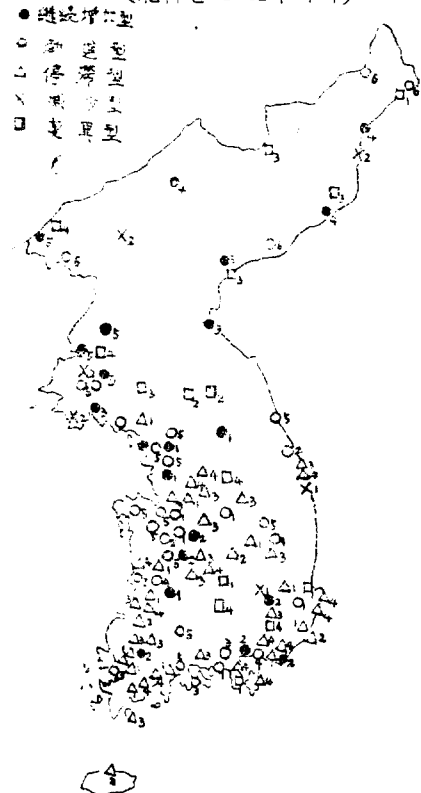
韓國都市成長의 類型

類 型	特 色	都 市
A 繼 續 增 加 型	<p>A₁ 1930年代 激增, 解放前 若干鈍化하였 다가 다시 增加傾向</p> <p>A₂ 解放前後를 通하여 같은 傾向으로 繼 續 增加</p> <p>A₃ 北韓에 있어서 解放前 繼續增加</p> <p>A₄ 北韓에 있어서 解放前 繼續激增</p> <p>A₅ 北韓에 있어서 繼續 激增型中, 中間 에 若干 鈍化 傾向</p>	<p>서울, 仁川, 全州, 水原</p> <p>淸州, 大田, 光州, 大邱, 馬山, 釜山</p> <p>海州, 沙里院, 咸興, 元山</p> <p>淸津, 城津, 江界</p> <p>平壤, 新義州, 鎮南浦</p>
B 漸 進 型	<p>B₁ 거의 같은 傾向으로 漸次 增加</p> <p>B₂ 漸次增加하는中 多少 큰 增加가 있었 음</p> <p>B₃ 解放前에 繼續增加하다 解放後鈍化</p> <p>B₄ 解放後 한때 激增</p> <p>B₅ 近來에 漸次 增加 傾向</p> <p>B₆ 北韓에 있어서 解放前 漸進하는 傾向 이 있던 都市들</p>	<p>忠州, 天安, 安東, 慶州, 順天, 三千浦</p> <p>公州, 江陵, 鎭海, 鳥致院, 浦項</p> <p>群山, 木浦, 麗水, 晉州, 春川 裡里</p> <p>素砂, 議政府, 論山, 南原, 安養, 瑞山, 束草, 榮州</p> <p>載寧, 信川, 延安, 宣川, 北青, 雄基, 會 寧, 定州</p>
C 停 滯 型	<p>C₁ 繼續的으로 微增의 傾向이 있음</p> <p>C₂ 繼續停滯中 多少 變化가 있음</p> <p>C₃ 解放後 繼續停滯의 傾向</p> <p>C₄ 停滯中 한때 減少傾向</p>	<p>江景, 開城, 安城, 金堤, 筏橋, 松汀, 龜 浦, 永川, 榮山浦, 羅州, 康津, 醴泉, 蔚 山, 錦山, 平澤, 墨湖, 進永</p> <p>井邑, 濟州, 尙州, 方魚津</p> <p>長湖院, 沃川, 扶安, 堤川, 曾坪, 洪城</p> <p>河東, 新泰仁, 注文津, 長興, 長城, 禮山</p> <p>淸道, 義城, 寶城, 莞島, 潭陽</p> <p>甘浦, 固城, 北坪, 利川, 長項, 倭館, 永 同, 長承浦, 九龍浦, 驪州</p>
D 減 少 型	<p>D₁ 近來에 人口 減少한 都市들</p> <p>D₂ 北韓에 있어서 解放前 減少</p>	<p>三陟, 金海</p> <p>甕津, 安岳, 北鎭, 漁大津, 羅津</p>
E 變 異 型	<p>E₁ 한때 激增하다 減少</p> <p>E₂ 人口激減한 都市(休戰線上)</p> <p>E₃ 北韓에 있어서 短期間에 急進한型</p> <p>E₄ 其他의 變異型</p>	<p>金泉, 忠武, 羅津</p> <p>鐵原, 金化</p> <p>興南, 惠山, 吉州, 南川</p> <p>松林, 義州, 安州, 密陽, 原州, 居昌</p>

致院은 一時 人口增加가 顯著하여 中都市를 이루게 되었다. B₃은 群山, 木浦, 麗水等 湖南의 米穀地帶를 背景으로 解放前에는 比較的 急速한 人口增加가 있었으나 後半期에는 若干 純化한 港市가 이에 屬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B₄는 後半期에 比較的 增加가 큰 裡里가 이에 屬하고, B₅는 後半期 20年間에 都市化하여 比較的 活氣가 있는 것으로서 素砂, 議政府, 安養等 서울의 衛星都市와 論山, 南原, 榮州, 瑞山, 順天等的 副次的 地方中心都市와 溫陽等的 서울에 가까운 保養都市가 이에 속한다. B₆는 北韓에 있어서 解放前에 比較的 成長을 하던 地方 中心都市들이 이에 屬한다.

C型은 年 5% 以下の 微增 또는 거의 變化없거나 때로는 減少의 傾向까지 보이는 主로 農業地帶의 地方小都市群 들인데 農村人口를 多數 包含하는 田園都市들이다. 이들 地方 小都市들은 解放後 邑으로 또는 市로 昇格한 것이기 때문에 資料取扱上 北韓은 除外되어서 中南部地方에만 分布하여 있는 것같이 되었다는 것을 附記하여둔다. (Fig. 8) 韓國都市成長의 類型(一次大戰後)

(北韓은 1942年까지)



며 때때로 人口增加에 多少의 變化가 있는 型이

다. C₃은 解放前後하여 또는 解放後에 邑이된 地方都市이며 繼續 停滯狀態에 있으며 內陸의 山間盆地에 많이 分布한다. C₄는 C₃와 비슷하나 한때 人口減少의 傾向이 보이는 地方小都市들이다.

D型은 그 原因은 區區할 것이나 邑이된 後에 人口가 減少한 都市들인데 三陟, 安岳, 北鎭, 龜津, 漁大津은 鑛工業都市 및 漁港으로서 解放을 前後하여 金鑛과 化學工業 및 경어리 漁業의 衰退에 起因되는 것이라고 본다.

E型은 都市成長 過程에 있어서 增加 減少의 變化가 甚한 都市들인데 E₁은 忠武, 金泉, 羅津과 같이 한때는 活氣를 보이다가 減少하는 都市들이고, E₂는 鐵原, 金化와 같이 休戰線에 있어서 人口 激減한 都市들이고, E₃는 興南, 惠山, 吉州와 같이 工業地帶에 따라서 急激히 成長한 都市들이다. E₄는 其他의 變異型인데 激增減少가 그 都市의 特殊한 條件 때문에 異變한 型이다.

以上에서 分類考察한 것을 地域別로 보면 繼續增加型(A)과 漸次增加한 漸進型(B)을 합쳐서 都市成長이 比較的 큰 地域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Fig. 9)

- ① 서울~仁川~水原에 이르는 京仁工業地帶와 忠南의 北西部.
- ② 天安~淸州~公州~大田~論山~裡里~群山 全州에 이르는 中, 西南部 農工地帶.
- ③ 大邱~慶州~釜山~馬山~晉州~三千浦~麗水에 이르는 嶺南農工業地帶 및 水產業地帶.

Fig. 9. 韓國의 都市成長 類型地域區分



④ 平壤~嶺南浦~沙里院~海州 및 新義州等地的 關西工業地帶

⑤ 元山~咸興~城津에 이르는 關北工業地帶.

⑥ 其他 嶺西의 內陸盆地, 北部山間盆地等에 分散的인 增加地域이 있다.

한편 都市停滯地域은

① 車嶺山地洛東江中, 上流南東沿岸 中部地帶와 地方小都市群

② 湖南平野와 東南沿岸地方的 農漁村地帶의 地方小都市와 小漁港들.

結論: 以上을 要約하면 韓國은 古來로 王都나 地方行政官廳 所在地 또는 兵營과 水宮, 鎮, 市場, 驛院을 中心으로 封建的이고 官僚的인 消費都市가 比較的 稠密하게 發生하였다. 그러나 이들 封建都市들은 “市民없는 都市”들로서 今世紀 初까지 活氣없이 停滯狀態에 있었다.

世界 一次大戰後의 世界的인 經濟恐慌을 日本은 植民地의 犧牲과 大陸侵略으로 解決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韓國은 單純한 米穀 食糧生產 地帶에서 畸型的이나 日本의 投資에 依한 工業化가 併進되었다. 이에 따라서 人口의 都市集中은 顯著하게 되었고 都市地域은 擴張되어갔다. 그러나 都市化에는 세가지 樣相을 찾아볼 수 있었다.

①은 封建都市中에서 選擇된 것이 近代都市로 成長 發展하는 것. ②는 交通要地, 鑛工地에 發生한 新興都市들. ③如前히 停滯狀態에 머물러 있는 封建的 地方都市들 이렇게 세가지이다.

이러한 都市化나 都市地域의 擴張은 地域에 따라 差異가 컸다. 京仁地方을 中心으로 釜山, 京義 및 湖南線等 主要幹線 鐵道 및 長項線沿線, 南海岸과 關北海岸地方을 따라서 比較的 連續的인 都市地域을 形成하였고 嶺西地方의 山間盆地, 嶺東海岸地方에 分散的인 都市化를 가져왔다. 大體로 論하면 韓國은 中國이나 中部 Europe 과 같이 內陸地方의 平野나 盆地中心에 封建都市가 發生하였는데 이들中에서 選擇된 것 만이 近代都市로 變貌 發展하였고, 沿岸都市의 發生은 比較的 늦었다.

一次大戰後 韓國의 都市成長 過程을 政治, 社會, 經濟條件에 依해서 細分하면 다음과 같은 過程을 거쳐 成長하였다.

I 期(1920年前)는 아직 封建體制下的 停滯性이

濃厚했던 時期이고, II 期(1921~1929年)는 中南部 農業地帶와 各地方의 中心都市에 近代都市化가 始作된 時期이고, III 期(1930~1937年)는 農工 併進에 따라서 北韓工業地帶와 重要交通要地에 近代都市化가 컸고, IV 期(1938~1945年)에는 이들 都市에 都市計劃에 依하여 都市型態의 近代化가 促進되었다. 解放後 南韓의 都市는, V 期(1946~1949年)의 都市人口 集中期와, VI 期(1950~1955年)의 歷史上 未曾有的 都市戰災期를 거쳐 VII 期(1956年~現在) 戰災都市再建期를 마지하여 都市는 近代化되고 Metropolitan area 는 擴張되어 가고 있다.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거치는 韓國의 都市成長을 類型的으로 分類하여 A 繼續增加型, B 增加型 C 停滯型, D 減少型, E 變異型 五區分한다면 A 와 B 型 即 增加傾向의 都市地域은 ①京仁地方, ② 中西南部農業地帶, ③嶺南 農, 水, 工業地帶, ④ 關西 및 ⑤關北工業地帶의 都市들이다.

停滯的인 都市地域은 ①車嶺山地 中部 小都市들 ②湖南平野와 西南沿岸地方의 農漁村地帶의 地方小都市들 ③洛東江上, 中流, 東南岸農漁村地帶의 漁港과 小都市들이 이에 屬한다. (1961年 여름稿) (서울教育大學 教授)

註

- (1) 木內信藏: 都市地理學 研究 1951, pp. 92~93
- (2) 地方自治法 第五條 市 또는 邑은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市는 人口 5萬以上, 邑은 2萬以上이 되어야한다.
- (3) 今世紀 以前에 이미 倭館, 中江嶺에는 國際市場이 開設되고 있었다.
- (4) 李朝末葉 1906年의 內部調査의 人口數는 579.4萬인데 其 다음해인 1907年의 警務顧問部調査로는 978.2萬이고 朝鮮總督府 古統計表에는 같은해의 人口가 1300萬 以上으로 나타나 있다. (善生永助, 朝鮮의 人口研究에서)
- (5) 善生永助: 朝鮮의 人口研究 1925, pp. 24~32.
- (6) 日本의 都市人口의 比率은 1950년에 市部 人口인 50%를 차지한다. (木內信藏, 都市地理研究)
- (7)(8) 木內信藏: 都市地理研究 1951. p. 221
- (9) 矢守一彦: 歷史地理 講座 第2卷, 1958. pp. 127~128.

李朝에 있어서 市場分布(1800年項)와 李朝末 都市分布圖를 「與載提要」에 依해서 作成한 것인데 人口 3,000 以上の 都市를 城郭都市와 城郭이 없는 것으로 區分하여 表示하였고, 市場分布가 兼하여 있다.

(10) 川合彰武：朝鮮工業の 現段階 1943. pp. 52~55

(11) 朝鮮經濟年報 改造社版：1940. p. 139

朝鮮市街地 計劃令施行規則 第一條에 計劃令에 依해서 市街計劃으로서 決定된 事項은

- ① 道路, 廣場, 鐵道, 軌道, 河川, 運河, 港灣, 公園, 水道, 下水道, 運動場, 市場, 屠場, 墓地, 火葬場, 塵埃 및 汚物處理場, 飛行場, 土地區劃整理, 一團의 住宅經營, 一團의 工業用地造成, 貯水池 및 防風, 防水, 防火, 防砂, 防潮에 關한 施設의 計劃
- ② 計劃令에 規定하는 地域 및 地區(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 風致地區, 美觀地區, 防火地區, 風紀地區)
- ③ 前二項에 들은것 外에 交通, 衛生, 保安, 防空經濟等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施設의 計劃

地圖, 資料, 圖表

(1) Fig. 1~9의 統計 資料는 主로 다음에 依據하여

筆者가 作成함

朝鮮總督府：朝鮮의 聚落 前篇 1933年

李如星, 金世鎔：數字 朝鮮研究 1935年

李智皓：世界地理統計 1954年

內務部 統計局：簡易總人口調查報告 1955年

各道：各道道勢一覽 1960年

內務部 統計局：國勢調查結果人口數速報 1960年

(2) Fig. 3, 4는 李相萬著 地圖(弘志社版)의 200萬分의 一地圖에 筆者가 作圖한것을 寫眞縮小한 것임.

(3) Fig. 5의 韓國都市分布圖는 Denoyer-Geppert Co. Chicago의 Cartocraft Desk Outline map Korea에 筆者가 作圖한 것을 寫眞縮小한 것임.

(4) 1945年 以後의 北韓地方은 資料未備로 取扱치 못하였음,